

한국사회와 의사

이 용 원

세브란스 전공의 협의회 정책팀

2000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 중 하나인 의료계의 파업은 의사 사회에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의 사회화라는 개념이 의사들에게 핵심 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 동안 의사들이 비단 의료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 나아가 의료 시스템, 심지어는 의사사회 내부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였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의사집단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도 미숙했다는 것이 의사 사회 내부의 반성이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새로운 중점사업의 하나로 정치와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특히 사회에 대해 무관심했고 바쁜 교육수련 과정 속에서 매몰되어 어찌 보면 사회와 격리되어 있던 많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병원에만 파묻혀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바쁜 일과 속에 파묻혀 평범한 의대생, 전공의로 지내오던 필자에게 2000년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들은 의사와 사회의 관계를 다른 시각

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한국 사회와 의사

1. 의료계의 파업과 전공의 그리고 의사의 사회화

이제는 사회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분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도 더 이상 과거처럼 일부 계층이 정보를 지식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예전처럼 인술을 펼치는 절대적 권위의 시혜자가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이상으로 는 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왔지만, 의료계의 파업 과정에서 이제 막 사회에 대해 자각하게된 젊은 의사들에게 있어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자들에게 '아저씨'나 '아가씨'로 불리면서 느꼈던 씁쓸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었다. 교육수련을 마치고

나간 후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장차 기대하고 있던 경제적 지위가 취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힘든 교육수련 과정에도 불구하고 길러오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라는 자긍심이 사회적, 정치적 여론몰이에 의해 짓밟히고, '전문가적 자율성'마저도 '비합리적인 통제'로 침해받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 큰 이유였다. 다른 한편으로,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의료정책들과 한국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전공의들이 교육받아 온 것에 비추어 보거나 예비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전공의 집단이 가장 강력한 조직력으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게 한 원동력이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건의료가 사회적, 국가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집단이기주의, 미래의 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한 반발, 개혁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항, 의료계 내부의 계층갈등의 외부적 표출로 이해함으로써 의료계와의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의사들의 주장이 결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무리한 의료정책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의식이 성숙된 것이다. 과거에 사회나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던 많은 의사들이 오랜 기간 사

회와 유리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였으며, 의사소통방식이 얼마나 미숙했었던가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다. 아울러, 적극적 사회참여와 조직화의 필요성, 계층분화에 따른 의사집단 내부 갈등 조정 등 수많은 과제들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급속한 사회 의식화가 진행되었다.

2. 사회시스템과 의사조직, 그리고 의사소통

필자는 운 좋게도 학부시절 특성화선택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수혜자가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제 3세계의 전형인 방글라데시의 의료시스템과 실제 의료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과거 영연방 국가였기에 영국식 공공의료시스템의 일면과 민간의료 부문이 혼합된 열악한 경제 환경 하에서의 의료현장의 실재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또한 2001년에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서 추진한 "미국 의사협회 및 산하 전공의 협의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A-Resident Fellow Section) 분석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첨단을 달리면서도 너무나도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미국 사회에서의 의사집단의 위상과 활동을 직접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기간 내내 의사사회 내부를 소리 없이 달구었던 또 다른 주제인 '의료의 공익성' 대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흐름과, 선진국과 개도국 의료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방글라데시와 미국, 두 사회 모두에서 의사들은 권위 있는 상류층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어느 사회에서나 의료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문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자의 경

우 일반대중들이 의사를 전문적 지식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경원(敬遠)하면서도 경제적 동기만을 주로 추구하는 계층으로 인식하여 소리 없는 비난과 불신을 보이고 있었지만, 후자의 경우 오랜 기간 교육수련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존중을 받고 있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전자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고 있었고, 의료인력의 희소성이나 열악한 환경, 무기력감 등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진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한편, 공공의료는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물려드는 환자들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수준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부유층에게서는 외면을 받았다. 환자들도 권위적인 자국의 의사들을 그다지 탐탁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의사들은 사회 일반과의 의사소통도 거의 단절된 말 그대로 그냥 상류계층이었다. 바로 의사와 사회와의 괴리가 점점 심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글라데시를 떠난 의사들은 영국, 미국의 의료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결국, 사람이 아닌 낙후된 사회환경이나 직업윤리 등 정신적 동기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의료의 형평성과 비용측면에 있어서는 비록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지만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집단 자체가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서 엄청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정부나 의회에 건의되었다. 전담 로비회사의

고용은 물론이며, 심지어는 정치지방 의사들을 위한 정치학교나 후원 부서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금연, 약물 등 공중보건과 관련된 쟁점들은 의사조직이 주체가 되어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학생, 전공의 시절부터 폭넓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복잡한 의료부문의 정책과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확보한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양성해내는 효율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사회 일반이 의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질 관리를 통해 확고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지켜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학드라마나 다큐멘터리제작의 후원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까지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 바로 2000년에 한국 의계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과제들을 이미 수 십 년 간 진행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3. 사회에 필요한 의사, 헌신적인 의사를 길러내는 사회

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사회적 관심사와 의료부문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공익을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활동,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의사 사회 내부의 질 관리와 그로 인한 전문성의 향상,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노력, 다음 세대 의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어지는 참여기회와 인수인계, ...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진정한 자기자리를 찾아 사회와 유리되지 않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들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엄격히 선발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이나 전공의 교육수련과정에 대한 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가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이다. 의료부문을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유지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첨단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간 부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가장 충실하다는 미국조차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해 사회보험인 Medicare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사법연수원생들(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의 대부분은 개인 법률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다.)에 대한 국비지원과 같은 예가 있다. 의사들을 양성하는 비용을 개인이나 개별 교육 기관에 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사 개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관심을 약화시키는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가 베푸는 혜택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무가 고양되고 이는 나중에 사회에 대한 헌신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용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성 함양이나 정신적 동기 부여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확고한 직업 윤리 수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몸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사회와의 격리가 가장 심해질 수밖

에 없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전문가로서 통찰력과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 사회들이 가장 대립되는 가치인 것 같은 평등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의료부문에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조화와 타협 없이는 사회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이다. 사회 일반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 자기 전문 분야에서 현 상황하의 최선의 방향을 충고하고 나아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심추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의 의무이다.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산적한 의료부문의 문제들, 등한시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공공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옹호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면서 엄격한 자기 관리와 직업 윤리를 확보해 나간다면 의사의 이미지와 사회에서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만큼 향상될 것이다.

맺으며

개인은 집단의 영향을 받고 집단은 그 개인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위 '드라마 속의 허준'과 같은 의사가 우리사회가 바라는 이상적 의사상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상적인 의사들을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드라마에서 다루어진 초인과 같은 의사는 조선왕조 500

여 년 역사에서 단 한 명 나왔을 뿐이다. 결국은 사회적 투자와 유도를 통해 이상적 의사상에 가까운 의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국가·사회적 투자를 바탕으로 윤리의식이 철저하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의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여해줄 사명감이나 투철한 직업윤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같은 정신적 동기들은 상

상 이상으로 사회에 대해 헌신적인 의사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동기나 투자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사들도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사소통 노력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야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